

[사회]

교과부·사학분쟁위 엇박자 조선대 정상화 갈수록 혼미

조선대 정상화 문제가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조선대 정이사 체제를 추진해오던 교육과학기술부가 갑자기 지난 9월 한시적 임시이사 선임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최종 결정권을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 엇박자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위원장 정경호)는 16일 제22차 정기회의를 갖고 조선대, 삼지대, 세종대, 광운대 정상화 방안 및 교과부가 접수한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했다.

조선대 등 4개 대학 구성원 100여명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3시께 사학분쟁조정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갖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과부 박종구 차관은 이날 정기회의가 끝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만나 교과부가 내놓은 임시이사 선임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가 지난 14일을 시한으로 조선대 직전 이사진 정예리시(고 박철웅 총장 부인)씨 측에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 추진과 무관하게 정이사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예리시씨 측은 시한인 14일까지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예리시씨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참여정부 시절 구성된 사

학분쟁조정위원들의 임기(2009년 12월 27일)가 끝나면 보수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크다.

교과부가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옛 경영진이 현재도 활동 중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화 무산에 따른 비난은 고스란히 교과부의 몫이 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조선대는 정상화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정황상 현재 상태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검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 나선다

광주지검 특별단속반 출범

검찰이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나섰다. 광주지검은 16일 오전 청사 3층에서 황희철 검사장과 한병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기초질서 확립 특별단속반’ 출범식을 갖고 열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

이날 출범한 단속반은 양부남 형사 3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식품 전담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광주 5개 구청에서 파견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식품위생법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사범이나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먹을거리 관련 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양부남 부장검사는 “빨라진 파동,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수입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먹을거리 관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해 기초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필길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국사 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 제시

전남 초등생 100명 중 5명 ‘머릿니’

초등학생 100명 중 4명은 아직도 머릿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 무려 70% 가량의 아이들이 머릿니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개 초등학교의 머릿니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 1만5천373명 중 623명(4.1%)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머릿니 기생충은 남자(1.9%)보다 여자(6.5%) 아이들이 무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3.1%의 기생충을 보였지만 농촌지역

은 4.7%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4.9%의 기생충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모 보육원은 33명 중 22명(66.7%)이 머릿니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 의원은 “저연령에 나타나는 머릿니의 경우 전염성이 강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머릿니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기생충 조사를 치료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근현대사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말 교과서 발행에 권고하고 11월말까지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연합뉴스

해외 조기 유학 처음으로 줄었다

최근 통계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생이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으로 전년(2만19천511명)에 비해 1천843명 감소했다. 2만7천668명은 해외이주(5천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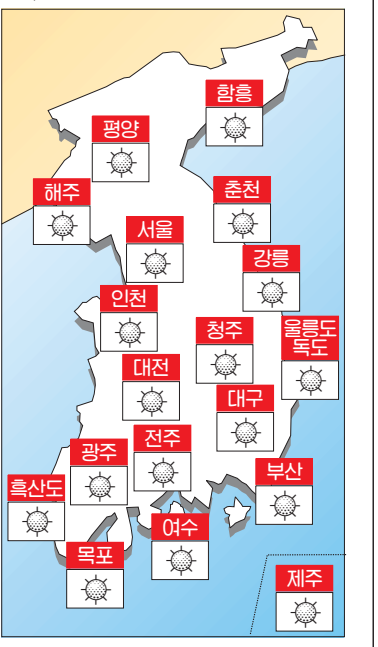
명),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9천855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 수를 말한다.

초·중·고 유학생 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19천511명) 등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가을이 깊어가네 10월 17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주요 지역	기온
서울	15~28℃
부산	15~27℃
대구	17~24℃
대전	15~26℃
광주	11~28℃
전주	10~27℃
제주	15~26℃
충청	11~28℃
경남	10~27℃
강원	11~28℃
충북	11~28℃
충남	10~27℃
전남	11~27℃
전북	13~27℃
경북	11~27℃
강원	13~27℃
충청	9~28℃
경남	16~24℃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북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만남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3:16 썰물 < 08:30
15:59 썰물 < 21:06
여수 밀물 < 10:32 썰물 < 03:57
22:34

▲해돋이 06:40 ▲해질 17:55 ▲달돋이 19:18 ▲달질 09:2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씨						
최저/최고	14/27	15/24	13/25	12/25	13/24	14/21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급증

전남 2006년 50건 → 2007년 214건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업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3년간 전국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의 농산물 평균 부적합비율이 3.1%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충남지역의 부적합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전남의 경우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은 ▲2005년 2천672건 중 50건(1.9%) ▲2006년 3천51건 중 50건(1.6%)이었던 것이, 2007년엔 4

천343건 중 214건(4.9%)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도 ▲2005년 483건 중 12건(2.5%) ▲2006년 483건 중 15건(3.2%) ▲2007년 926건 중 29건(3.1%)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농산물 잔류농약의 경우 7만6천650건 중 3.4%인 2천623건이 부적합이었으며, 총량이 428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도 314건(12.0%)에 달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합 판정이 2007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업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부동산 전문컨설팅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대표이사 010-7570-7525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 명도 정확한 권리분석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끊임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 근린시설/오피스텔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 주택/지가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면적	층수/층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영광군	대1086/건170	3922천	194천	익산시	신영부세	53	10/3	3996천	2995400원	익산시	대86/건246	194천	7800천	
목포시	대1196/건162	10933천	722천	무안군	대원로	40	10/2	2944천	1994500원	익산시	대55/건222	8800천	5500천	
홍원동	대178/건586	2111천	496천	마곡동	서암인영	32	22/8	1922천	8050원	남원동	대86/건250	197천	9400천	
무안군	대108/건193	10966천	794천	마곡동	회암가	32	15/3	1965천	1912000원	남원동	대38/건242	8100천	5100천	
무안군	대178/건209	7397천	4192천	무안군	리안	50	11/1	1945천	1964000원	남원동	대46/건247	191	6000천	
무안군	대83/건272	2933천	196천	무안군	현대	31	15/15	191천	7700원	남원동	대44/건231	8900천	4800천	
무안군	대154/건416	1419	9949천	무안군	나산	37	16/4	194천	9900원	남원동	대43/건242	8400천	8000천	
무안군	대137/건219	8942천	493천	무안군	금호동	대41/건185	1498천	696천	48000원	남원동	대50/건233	191	5700천	
무안군	대382/건393	41944천	2899천	무안군	평안동	신부	24	5/5	8000천	4200원	남원동	대71/건250	2966천	198천
무안군	대104/건234	7933천	591천	무안군	회암동	주공	16	5/1	7000천	4900원	남원동	대45/건248	9000천	6300천
무안군	대1131/건346	7983천	2922천	무안군	금호동	주공	52	20/10	2949천	1961000원	남원동	대78/건245	291	1944천
무안군	대70/건175	4999천	2922천	무안군	신가동	금호빌라	32	4/4	1944천	8000원	남원동	대134/건232	6966천	3966천
무안군	대54/건101	2955천	197천	무안군	무등동	무등파크	33	15/15	1942천	8050원	남원동	대38/건249	191천	7800천

▶ 주택/지가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무안군	대80/건293	9955천	4922천	5층빌딩
무안군	대117/건295	9955천	494천	5층빌딩
남원동	대832/건2626	15944천	6939천	4층빌딩
무안군	대134/건2400	14955천	5922천	6층빌딩
곡성군	대683/건2284	10092천	2919	10층빌딩
곡성군	전영11	1922천	14000천	15층빌딩
전남	전영200	20943천	991	7층빌딩
무안군	전영36	491	194천	20층빌딩
무안군	전영200	20943천	991	20층빌딩
무안군	전영33	1922천	43000천	5층빌딩
무안군	전영20	2999천	34000천	7층빌딩
무안군	전영20	3999천	1911천	6층빌딩
전남	전영33	591천	198천	5층빌딩

▶ 근린주택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무안군	대71/건162	3912천	198천	4층근린주택
무안군	대80/건89	2942천	9700천	4층근린주택
무안군	대38/건224	4948천	2968천	4층근린주택
회암동	대43/건94	2948천	1999천	3층근린주택
오산동	대152/건587	16966천	11966천	5층근린주택
무안군	대59/건185	1498천	696천	4층근린주택
무안군	대85/건578	13977천	3999천	7층근린주택
무안군	대40/건89	2942천	1942천	3층근린주택
무안군	대40/건106	2942천	9400천	2층근린주택
무안군	대65/건123	291	191천	2층근린주택
회암동	대31/건261	16999천	9944천	4층근린주택
목포시	대218/건387	13977천	7983천	2층근린주택
목포시	대108/건293	5933천	2933천	4층근린주택

▶ 공장/토지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오산동	전영128	291	191천	공장
무안군	대2050/건1296	19944천	8922천	공장
영광군	대1739/건966	99944천	2966천	공장
안양동	대1074/건1468	30999천	17922천	공장
안양동	대607/건442	5912천	2966천	공장
곡성군	대854/건2500	7942천	2966천	공장
신안군	대578/건1149	291	7400천	공장
안양동	대2398/건1140	41977천	2911천	공장
안양동	대1000/건835	15912천	10966천	공장
신안군	대4190	4977천	2966천	대지
송광동	대지193	191천	6100천	대지
송광동	대지43	48000천	2700천	대지
송광동	대지203	7942천	3933천	대지

2009년에도 동부고시 합격신화는 계속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준비!!!

개강 11월 3일(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찰직/ 교정직/ 출판직/ 기술직

소방직 5년간 8,359명 채용! 소방직 단독반 개강: 11월 3일

2008년 동부고시학원 국가직, 광주/전남/서울/경기 지방직 합격자 면접특강 장면

공무원 합격을 1위!!! 학원만족도 1위!!! 강의만족도 1위!!!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www.dongbugosi.co.kr

1 동부고시학원

공무원 합격률 1위

동부경찰서 바로뒤 233-0509

선착순접수, 조기마감주의